시민과 함께 2019 / 8월 3주차

■ 연구원 소식

○ 제4회 독립운동 국제영화제(8월 17일)

지난 8월 17일(토), 독립운동 국제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더운 날씨와 징검다리 연휴로 많은 분들이 오시기 어렵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모두 50여 분의 시민들이 영화제를 찾아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기념행사 안내 (8월 31일 ~ 9월 1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야경

2006년 9월 2일 공식적으로 대문을 열었던 우리 연구원이 어느덧 열세 살이 되었습니다. 오는 "**8월 31일(土)~9월 1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3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입니다.

우리 연구원 회원인 김순석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이어 받은 전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인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개원 13주년 회원의 날은 전통문화와 역사를 찾아보는 교양 강좌와 향음주례(鄕飮酒禮)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왕기석 원장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함께하시어 경향각지의 좋은 기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빌겠습니다.
개원 기념 회원의 날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063-286-3005)나 사무국장(010-6275-0409)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회원의 날 상세 행사개요

- 참가대상 : 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약 70명
- 일　　정 : 2019. 08. 31(토) ~ 09월 01(일) <1박 2일>
- 장　　소 : 전주 전통문화연수원
- 행사문의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사무국(063-286-3005), 사무국장(010-6275-0409)
- 행사일정

날짜	시간	내용
8월 31일 (土)	14:00 ~ 14:30	준비 및 등록 준비 (방명록 작성, 이름표 배부 등)
	14:30 ~ 15:00	참석자 도착 및 숙소배정
	15:00 ~ 17:30	鄕飮酒禮 및 전통놀이
	18:00 ~ 19:00	개원 13주년 기념식(왕기석 이사 공연 등)
	19:00 ~ 20:00	저녁식사
	20:00 ~ 20:30	애장품 경매
	20:30 ~ 21:30	뒤풀이
	21:30 ~	자유시간
9월 1일 (日)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0:00	한옥마을 답사
	10:00 ~ 11:00	경품 추첨
	11:00 ~	귀 가

■ 네팔의 ‘은둔 왕국’ 무스탕 기행, 첫 번째 이야기

그림이면 그림, 글이면 글, 차고 넘치는 재주를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영봉 교수께서 보름간 네팔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네팔의 ‘은둔 왕국’ 무스탕 기행“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테츠학과 교수)

나마스테, 네팔!

기다림도 끝이 났다. 드디어 출발이다. 공항버스에 자리를 잡자, 평온하던 가슴이 일렁이기 시작한다. 버스가 속도를 내자, 내내 가라앉았던 10년 전의 기억들이 표면 위로 떠오른다. 카트만두와 포카라. 크리슈나와 라미쉬 등등의 시인과 화가. 푼힐 전망대와 원숭이 사원.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마차푸차레와 히말라야의 연봉들. 관광성 장관과 렌드로바. 왕궁 앞의 노점들과 수도자 구루. 전륜장과 룽다. 다랭이 논들과 카레. 부연 아침을 열던 벽돌 공장과 하얀 웃음들. 이제 이 기억의 일부를 다시 찾는 발걸음이다. 그렇지만 도심 주변을 배회하던 그때와 달리, 네팔의 품속 깊이 파고드는 행로다.

'Forbidden Kingdom' 무스탕. 우리는 이곳을 걸으리라. 햇빛과 바람과 비를 쬐고 맞으며, 고산준령을 오르내리는 한 줄기 길을 헤집어 나가리라. 바람의 후예가 되어 도처의 룽다와 타르초를 찾는 순례자가 되리라. 푸른 하늘에 유유히 떠도는 독수리 떼들을 위해 내 마음의 한 자락을 풀어놓으리라. 밤이면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내 영혼을 하얗게 표백시키리라. 이 지구별 여행자의 무사안녕을 저 명왕성의 동료들에게 타전하리라. 그리고 멀리 황야가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에 올라 딱 한 번만 통곡하리라. 순다리!

인천에서 네팔로

6시간 정도의 비행 끝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트리부반 공항에 내렸다. 트레킹을 책임진 '네팔로'의 대표 라케스 다말라가 가이드와 함께 마중을 나왔다. 로즈마리골드로 엮은 예의 그 꽃목걸이를 우리들에게 각각 걸어주었다.

혼잡한 거리를 지나 타멜 지역의 한 호텔로 향하였다. 차창에 비치는 풍광은 지난날과 별반 다름없다. 왕궁은 2008년에 이사를 했다고 한다. 네팔은 오랜 왕정 끝에, 공산정을 거쳐 민주정을 받아들인 나라다. 길가 노점상 주인들의 표정이 순박하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식당을 찾아갔다. 스테이크 전문점이다. 힌두교도가 주를 이루는 나라의 첫 식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소고기다. 모두 인도에서 수입한 것이란다. 곁들인 맥주의 상표는 골카라다. 골카라는 포카라 인근의 지명이다.

라케스 대표의 한국말은 실로 유창했다. 그의 부인은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교사로 근무 중이란다. 우리를 전담할 가이드는 몽고족 뎬지였다. 그는 오래 전에 경기도 용문의 용문사에서 몇 년간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역시 우리말을 퍽 잘한다. 생긴 모습 또한 그냥 한국 사람이다.

식사 도중 소나기가 지나갔다. 이곳은 지금 우기(雨期)이다. 따라서 트레킹 역시 날씨에 따라 변수가 많단다.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하긴 세상 일이 무엇 하나 쉽게 이루어지던가? 더더구나 지구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네팔 아닌가?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왔다.

"신이시여, 뜻대로 하옵소서!"

■ 역사 속의 오늘

99.37%의 득표율 (1980년 8월 27일)

현재 대통령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12명이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재임한 이승만이 1~3대, 1962년까지 재임한 윤보선이 4대, 군복을 벗고 권좌에 오른 박정희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5~9대 대통령이었다. 1984년 12월 26일까지였던 9대 대통령 임기는 1979년 10. 26 사태로 막을 내린다.

12월 21일 대통령에 취임한 10대 대통령 최규하가 1980년 8월 20일 신군부에 의해 축출당하며 역사상 최단명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최규하를 쫓아내고 1980년부터 8년간 11~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청와대를 지켰다. 13대 대통령 노태우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5년씩 2013년까지 자리를 지켰고 18년 만에 청와대로 돌아왔던 박근혜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민인들의 분노에 밀려 권좌에서 내려왔다.

되짚어 보면 12명 19대 대통령 가운데 현재까지 5명만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나섰다. 三代가 71년간 권좌를 주고받고 있는 휴전선 북쪽에 비해 참으로 역동적인 현대정치사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인 것이다.

오늘 이야기 될 주인공은 1980년 8월 1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한 최규하가 청와대에서 짐을 꾸리고 있던 1980년 8월 22일 대장 전역식을 진행했다. 그는 불과 17일전인 8월 5일 스스로 "별 넷"을 어깨에 달았고 민간인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없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며 전역식을 진행한 것이다.

전날 열린 전역식 전야제 행사에서 남긴 그의 발언은 사뭇 비장하기까지 했다.

"국가 원수라는 자리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불우한 남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불과 3개월 전 그는 수백 명의 민간인을 학살해 이미 불우한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 출발하는 학살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치곤 못 되도 너무 못된 말이었다.

전야제에 참석한 공군참모총장의 건배사는 대한민국 11대 대통령의 탄생을 증언하고 있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차기 국가원수로 전두환 대장을 추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 장군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못된 말의 향연이 이어진 전야제 다음 날인 8월 22일 서부전선 1사단 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전역식은 사실상의 대통령 행사였다.

'국가수반 경호경비 계획'에 준하는 사전 조치가 취해졌다. 사령부 내 모든 창문이 완전 봉인됐고 주변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역식 동안 모든 군사훈련이 중지됐으며 행사 요원을 제외한 사병 전원은 내무반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이미 8개월 전에 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 장군'이 옷을 벗고 청와대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행사였던 것이다.

전역식 자체는 그보다 더 화려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 중앙정보부장(현 국가정보원장), 합참의장, 육해공 3군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야전에서 사단 이상을 호령하는 2성, 3성 장군들도 말석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이 군복을 벗자 한반도 남쪽의 모든 언론은 일제히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방송은 말할 것도 없었고 중앙일간지도 온갖 미사여구로 부역자가 되었다.
편견 없는 성품은 항상 약자 편(조선), 솔직하고 사심없는 성품(중앙),
새 시대가 바라는 새 지도자상(동아), 전두환 장군 의지의 30년(한국),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 전두환 장군(경향), 군은 떠나도 겨레 곁에 있기를(서울)
등 형언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글로 학살자의 전역식을 칭송했다.

전두환은 전역식과 함께 보안사령관에서 사임하고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던 노태우가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8월 25일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두환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역식 5일 뒤인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통령 후보로 단독입후보한 뒤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적 대의원 2,540명 가운데 무효1표, 기권 15표 찬성 2,524표로 99.3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누구나 함께하는 설봉산 영월암, 네 번째 이야기 – 대웅전과 삼성각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영월암의 대웅전은 1941년에 조성된 석가여래를 본존불로 삼고, 좌우에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을 모셨다. 그런데 현판의 대웅전이란 글자가 낯익다. 퇴경退耕권상로權相老선생의 솜씨로, 평생을 학문에 바친 선비답게 얌전하고 단정한 글씨체다.

대웅전은 이천향교의 명륜당 앞에 있던 풍영루를 옮겨다 놓은것이다. 1949년 청암淸庵스님이 옮겨 짓던 도중 한국전쟁의 발발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1953년 11월 해옹海翁스님이 완공을 보았다고 한다.

기단은 잘 다듬은 화강석을 이용해 만들었다. 정면 중앙에 장대석을 이용해 계단을 쌓았다. 계단 좌우에는 소맷돌을 설치하였고, 기단 윗면은 강회다짐으로 마감하였다. 측면과 후면에는 벽을 친 다음에, 중방 위쪽의 벽에다가 벽화를 그렸다. 벽화는 모두 8폭으로, 7폭은 전형적인 심우도尋牛圖다. 내부도 벽화로 장식하였으니, 우측 문의 위쪽 벽에는 비악주천상이 그려졌다. 본존불의 뒤쪽에는 1962년 그려진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 등이 모셔졌다.

삼성각은 대웅전 왼쪽에 설치된 계단을 따라 올라야 한다. 계단이 시작되는 하단에서 맑은 물이 샘솟는다. 그 앞의 바윗돌에는 작은 부처님을 모셨다.

삼성각은 제법 높직한 자리로, 경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기상이 맑은 곳이니, 이곳 또한 여느 삼성각과 마찬가지로 산신과 독성, 칠성님을 모셨다. 그런데 참으로 보기 드문 양식을 지녔는데, 마치 진신사리를 모신 법당처럼 불단의 중앙에다 통유리를 설치한 것이다. 산신과 칠성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나반존자가 건물 밖의 뒤쪽 암벽 속에 모셔졌기에 짜낸 묘안이다.

나반존자는'독수성獨修聖'또는'독성獨聖'이라고 부른다. 남인도의 천태산天台山에서 홀로 도를 닦아 깨달음을 얻었기에, 그렇게 일컫는다. 나반존자는 흔히 머리카락이 희고 눈썹이 긴 모양으로 형상화된다.

영월암 대웅전 내부 나무지장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반존자는'삼명三明'에다가,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이리二利'를 갖춘 나한이라고 한다. 삼명은 숙명명宿命明, 천안명天眼明, 누진명漏盡明을 가리킨다. 숙명명은 전생을 남김없이 꿰뚫어 보는 지혜이며, 천안명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의미한다. 누진명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는 현세의 번뇌를 자유자재로 끊어 버리는 지혜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을 남김없이 알고 있는 분이 나반존자라고 말할 수 있다.

나반존자는'삼명'의 능력을 바탕으로 홀로 깨달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중생들의 복을 키워 주는 복전福田이 되기도 한다.그래서 나반존자는'자리'와'이타'를 도모하는'이리'를 갖춘 성자로 높이 기려진다. 연유에서 독성각이나 삼성각에서 중생들의 공양을 받는 분이다. 미륵불이 화현하는 용화세계龍華世界가 도래하는 날까지 나반존자는 중생들과 함께 이 세상에 머무신다고 한다.

삼성각의 뒤편에 들자, 감실처럼 꾸민 작은 바위굴 안에서 나반존자가 부드러운 미소로 찾아드는나그네들을 맞는다. 나직한 눈길 역시 인자하기 그지없다. 어느 스님의 재치인가? 붉게 칠한 입술에 생기가 돈다.

나반존자 어디 제 손 한번 정답게 잡아주시렵니까?

삼성각에서 내려가자, 경내를 소개하기 위해 세운 입간판이 마당 끝의 은행나무 앞에서 존재를 드러낸다. 여기서 입간판에 쓰인 글을 잠깐 인용하도록 하는데, 「세상을 의롭게 지혜롭게 살라」는 제목의 글이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유익한 내용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할 것이며 듣는 이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 것이며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했다고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할 것이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임금처럼 위엄을 갖추고 구름처럼 한가로워라. 역경을 참아 이겨 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리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며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행복은 내가 짓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짓는 것이네. 그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짓는 것 아니네.

수풀 사이로 수행자처럼 걸어와 암자를 찾은 순례자들에게 영월암이 주는 귀중한 법보시다. 그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명상가가 되어 잠시나마 침묵에 잠긴다. 굳게 다문 입술에는 새로운 다짐이 번져 간다. 속세에서 키웠던 탐욕과 분노와 시기 따위의 사악한 마음을 힘들고 무겁게 내려놓느라,' 휴우~!'하며 한숨을 내쉬는 사람도 보인다.

다음 주는 "누구나 함께하는" <설봉산 영월암> 다섯 번째 이야기 "마애입상과 석불좌상"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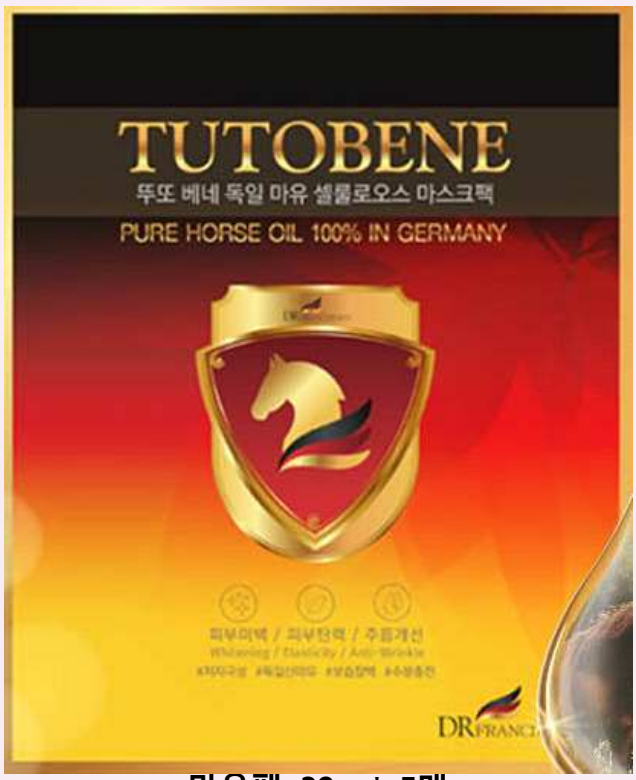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 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시 중 가 : 2만 9천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 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빌겠습니다.**